

호황기 맞이한 전력기기업계... 생산설비·신기술 확보 박차

HD현대일렉트릭

청주 중저압차단기 공장 신설 예정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대규모 투자
효성중공업 멤피스·창원 공장 증설

최근 데이터센터의 급증,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며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기기 업체들은 생산 규모 확대와 기술력 확보에 적극인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망 연간 투자 규모는 지난 2020년 2350억달러(314조 4300억원)에서 2050년 6360억달러(850조 968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최대 시장인 미국이 전력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미국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함께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LS일렉트릭 청주스마트공장.

투자를 진행 중이다. 미국 지역 송전 케이블 길이는 지난 2020년 77만6000ckm(서킷킬로미터)에서 오는 2030년 90만9000ckm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은 지난 2020년 5.2%에서 지난 4월

누적 기준 17.3%까지 증가했다. 중대형 변압기와 소형 변압기 모두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기기 업체는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약 1200

억원을 투자해 충북 청주에 중저압차단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로 지어지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신공장 설립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중저압차단기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천3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 전력기기 핵심 생산기지인 부산사업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1만 3223㎡(약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진공건조 설비(VPD) 2기를 증설해 조립장과 시험실, 용접장 등 전 생산공정을 갖춘 전망이다. 회사 측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매년 확대된다고 보고 2025년 9월까지 공장 증설 완료를 목표로 한다.

효성중공업 또한 미국 멤피스와 경남

창원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동시에 증설한다. 1000억원을 투자해 전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공장이 대규모 증설에 나선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업계는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대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3사는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2548억원을 지출했다. 3사 연구개발비 총액은 전년 2193억원과 비교시 16.1% 증가했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기기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며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전력 수요의 증가로 내년에도 전력기기 3사의 매출액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완성차업계, 임단협 마무리... 실적개선 주력

글로벌 車시장 위기 돌파 한뜻 “노사 협력 통해 경쟁력 확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동차 수요 위축에 따른 위기 돌파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 노사가 힘을 합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가 지난 11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하면서 완성차 5개사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르노코리아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24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0.5% 찬성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전체 조합원 1920명 중 1820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9명이 찬성을 택했다.

그동안 르노코리아노조는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 사측의 직장폐쇄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출시한 신차 그랑 콜레오스 판매 역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신차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결국 르노코리아 노사는 글로벌 위기 돌파와 실적 안정화를 위해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했다. 노사는 기본급 8

만원 인상, 그랑 콜레오스 성공 출시 격려금 등 성과 격려금 300만원, 변동PI 최대 100%(약 200만원) 및 스페셜 인센티브 250만원 등 생산성 격려금, 임금 피크제 개선, 노사화합 비즈 포인트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 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500%+18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 역대 최고 조건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조합원 58.93%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일찌감치 교섭을 마무리했다.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8월 말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에 PI(생산 장려금) 250만원 및 PS(이익 분배금) 100만원의 조건으로 교섭을 타결했다. 2010년 이후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했다.

한국GM과 기아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후 진행된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며 임단협을 빠르게 마무리했다.

한국GM은 지난달 4일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타결 일시금 및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특별교통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 등을 담은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찬성률은 60.3%였다.

기아는 이달 8일 노조가 2차 잠정합의안을 63.1%의 찬성으로 가결시키며 4년 연속 무분규 교섭 타결을 이뤘다.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 성과급 500%+1800만원, 무상주 57주 지급 등으로 현대차와 동일한 1차 잠정합의안에 조립 라인 직접 공정 수단 현실화, 출산 휴가 기간 연장 등이 추가됐다.

완성차 5개사가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파업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임단협 갈등에 따른 실적 악화는 피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명소노 “티웨이항공 지분 매수계획 없다”

경영권 확보 관련 입장 표명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지분 매수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을 둘러싸고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최근 공개매수 관련 소식에 대해 “공식 입장은 공개매수나 장내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

며 “아직은 없다’가 아니라 아예 (공개매수) 진행을 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 인수, 이사회 장악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지난 8월 소노인터내셔널(1.87%)과 대명소노시즌(10%)이 티웨이항공 지분을 매수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항공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최근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에 진출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회사가 더욱 커지기 전에 경영권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900원대의 주가는 한때 3700원대까지 올랐다. 티웨이항공의 1년내 최고 시가는 3990원이다.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영권을 가진 예림당 측과 지분 차이가 3% 수준인 관계로 언제든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계속해서 나온다. /박대성 기자 iunm@

삼성 “갤럭시 AI로 국가유산 체험해보세요”

갤럭시 Z 폴드6 등 체험 공간 운영

삼성전자가 자사 인공지능(AI) 브랜드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대한민국 전통 문화와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서울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갤럭시 AI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창덕궁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옹주, 화순 - 풀빛 원삼에 쓴 연서의 비밀’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조선 영조의 둘째딸인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갤럭시 AI의 실시간 통역 기능으로 내·외국인 회차 구분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참여자는 실시간 통역으로 한국 역사를 이해하고 관련 사진과 내용의 경우 번역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모국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모두 ‘서클 투 서치’(화면에 원을 그리거나 손가락으로 하이라이트



관광객들이 서울 창경궁에서 대한민국 전통 문화와 연계한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해 바로 검색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조선 시대 왕실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궁중문화축전과 연계해 이날까지 창경궁에서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탭 S10 시리즈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기간 중 창경궁을 방문한 고객들은 환경전에 위치한 궁중놀이방에서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과 서클 투 서치를 활용한 퀴즈쇼를 경험했다. 퀴즈쇼는 축제 자원활동가 ‘궁이둥이’와 함께 진행됐으며 참여 고객은 궁과 연관된 사진 퀴즈 등의 정답을 서클 투 서치로 확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오션, 단체교섭 타결... 경영정상화 속도

“4분기 생산 안정화 집중”

한화오션 노사가 올해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

13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회사는 11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지난 9일 노사 간 의견 일치를 이룬 임금 인상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생산 공정 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단체교섭 타결은 회사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노사 상생 및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경영 상태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화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화오션은 앞으로 노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아 4분기 생산 안정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